



얼마나 더 이렇게 울며 살아야 할까

세월호 참사 2주기 앞두고 추모 도서 출간 잇따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소식을 접한 단원 안산고 부모들은 땅이 꺼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다. “근현대 한국사의 최대 참사 중의 하나”라고 불릴 만큼 ‘세월호’는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과 고통을 주었다.

2년이 지났지만 유가족의 아픔과 세월호의 여진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세월호 참사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공통으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하는 사회적인 과제가 되었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추모 도서들이 잇따라 출간돼 눈길을 끈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유가족의 아픔을 담은 책부터 참사가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를 성찰한 책까지 다양하다.

‘416 세월호 참사 작가기록단’(작가기록단)이 서울과 안산을 오가며 생존한 학생과 유가족을 인터뷰한 ‘다시 봄이 올 거예요’(정비)는 또다른 참사의 기록이다. 세월호 참사를 은밀로 겪어낸 10대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책에 실린 26편의 인터뷰는 ‘사건 당사자’의 구술이자 유가족의 또다른 선언이다. 개인의 증언뿐 아니라 생생한 육성과 낱것의 감정을 오롯이 담아냈다는 점에서 기록문학의 성취라 할 만하다. 특히 ‘다시 봄이 올 거예요’는 ‘작가기록단’이 그해 4월부터 12월까지 단원고 희생 유가족들과 동고동락하며 써냈던 ‘금요일엔 돌아오렴’의 후속작의 성격이 띤다.

이처럼 ‘다시 봄이 올 거예요’에는 생존자와 유가족(희생학생의 형제자매)이 겪은 참사 당일의 경험

‘다시 봄이 올 거예요’

생존자·유가족 또 다른 참사 기록

‘4월이구나, 수영아’

전수영 교사 어머니의 딸 이야기

‘세월호가 남긴 절망과 희망’

참사가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

‘세월호, 그날의 기록’

10개월간 모은 방대한 자료 분석

과 이후의 일상이 담겨 있다. 특이한 점은 이들의 슬픔과 좌절감이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들의 일상을 지배한다는 사실이다. “나만 살아왔다”는 자책감, “엄마 아빠도 힘든데 나까지”라는 지레짐작이 이 같은 침묵을 강제하는 것이다.

서해문집에서 출간된 ‘4월이구나, 수영아’는 당시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교사 전수영 씨의 어머니가 쓴 딸에 관한 이야기다. 저자는 딸이 세상을 떠난 후 ‘이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해’ 글을 썼다고 밝힌다.

책에는 엄마가 쓴 육아일기와 전 씨가 어린시절 엄마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교사수첩에 기록된 마지막

수첩에 관한 부분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저자는 딸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과 일상에 서 더 많이 침착해지지 못했던 점을 후회한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년을 더 이렇게 울며 살아야 할까”라면서 “항상 학생을 생각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던 딸의 뜻을 기려 아이들이 바라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한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에 초점을 맞춘 책도 있다. ‘세월호가 남긴 절망과 희망’(한울아카데미)은 여전히 반복되는 대형 사고와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 국가시스템의 붕괴 등 다양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저자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1인 시위와 추모 문화제, 토론회 등을 개최한 ‘가만히 있지 않는 강원대 교수 네트워크’가 주축이다. 책은 참사 발생에서부터 진상규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사회학적 도구를 활용해 심도 있게 들여다본다.

그뿐 아니라 진상 규명 과정에서 드러난 국가시스템의 현실, 일부 언론의 잘못된 보도 행태, 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 과정에서 벌어졌던 잡음 등도 조망한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부조리와 관행 등 일탈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자리한 사회과학적 의미를 고찰한다.

‘세월호, 그날의 기록’(진실의 힘)은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단’이 10개월 동안 방대한 기록과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물이다. 세월호가 인천항을 출항한 순간부터 급격히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해 침몰할 때까지, 세월호 안과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생하게 재현한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천연염색과 민화 콜라보레이션 전시회

15일~5월 15일 나주 한국천연염색박물관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사장 강인규)과 호남민화사랑회(회장 문미숙)가 콜라보레이션 전시회를 개최한다.

‘천연염색과 민화가 만나면’ 전시가 15일부터 5월15일까지 나주 한국천연염색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천연염색 기법이나 색채를 민화에 접목하는 시도다.

김경란, 김미경, 김의경 등 천연염색작가 3명, 민화작가 19명, 잔조출품 6명 등 28명이 참여한다. 김경란 작가는 국제기능올림픽 의상디자인 금메달, 동탄산업훈장을 받았다. 자미공방 대표 김미경씨와 목사골공방을 운영하는 김의경씨는 오랫동안 천연염색 작업에 종사해 왔다.

천연염색작가들은 김수현 민화작가 작품 쿠션, 발, 가방 등에 쪽, 감, 소목 등 다양한 천연염색을 접목한 작품을 선보인다.

또한 올해 출범식을 갖은 호남민화사랑회 소속 작가 19명이 참여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민화를 출품한다. 회원 대부분 한국민화공



김미경 작 '새로운 만남'

모전, 전남도전, 무등미술대전 등 각종 공모전 입상경력을 갖고 있는 실력파다.

잔조출품 작가는 황영선, 조진호, 한희원 작가 등이며 윤일수 가회민화박물관장과 오석환 한국민화무지연구소장, 문미숙 회장 등도 소장 작품을 전시한다. 문의 061-335-609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창’ 35호 발간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백수인)이 발행하는 문화담론 주간지 ‘창’ 35호가 발간됐다.

이번호 특집 기획은 ‘광주역사관,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주제다. 조광철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가 ‘광주역사관 구축의 추진 상황과 과제’, 김덕진 광주교육대 교수가 ‘타 지역 사례 중심으로 본 광주역사박물관에 대한 제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원중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실장이 ‘광주 정체성의 뿌리를 보여주기’를 주제로 의견을 제시했다.

‘문화인 탐구생활’에서는 동화연구원 박예진씨와 염건이 광주장애인재활협회 사무국장을 소개했다.

‘문화진단’ 코너에서는 ‘혁신을 혁신하라-광주비엔날레 혁신, 과연 혁신인가?’(이묘숙 미술평론가), ‘아셈문화장관회의와 문화도시 광주’(이언용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무관)를 통해 지역 현안을 진단, 의미를 되돌아봤다.



‘문화현장’에서는 전교필 대인예술시장 총감독의 ‘대인예술시장의 성과와 과제’, 윤현석 1913송정역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단장의 ‘청년상인, 아이디어

열정으로 전통시장 활력 충전’에 대해 들어왔다. ‘문화청년그룹’에서는 영화와 다큐로 세상을 있는 문화콘텐츠그룹(주)이다’를 소개했다.

‘문화특목’에서는 ‘문화관 하나 없는 문화도시’(박선정 광주대 겸임교수), ‘문화콘텐츠의 기획·생산·유통·소비를 한눈에’(류영국 한국도시설계학회 광주전남지회장) 등을 다뤘다.

‘창’은 재단홈페이지(www.rcfe.or.kr)에서도 볼 수 있다. /김용희기자 kimyh@

‘세월호 2주기 기억 영화제’

광주극장 ‘업사이드 다운’ 메이홀 ‘나쁜 나라’ 상영

광주에서는 ‘세월호 2주기 기억영화제’가 광주극장과 메이홀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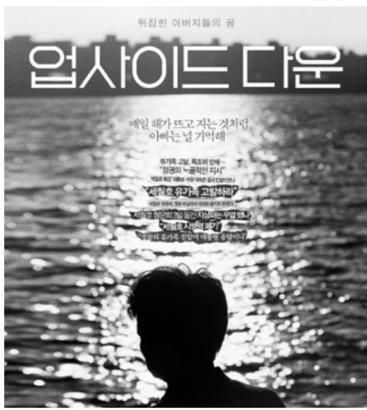
광주극장은 14~17일 다큐멘터리 ‘업사이드 다운’(감독 박동빈)을 상영한다. 14일 오전 11시·오후 5시 30분, 15일 오전 11시·오후 7시 20분, 16일 오후 1시·오후 7시 30분, 17일 오전 11시·오후 5시 30분.

이 영화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뒤집힌 ‘아버지 4명의 일상’을 돌이켜 본다. 외교관과 판사를 꿈꾸던 성빈이, 어릴 적 보냈던 많이 해주던 다영이, 의젓하게 ‘아버지, 잘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세호, 출발할 때 문자를 보내기로 한 약속을 잊어버

린 정도로 떠돌아있던 고운이. 아버지들은 아이들과 마지막으로 나눴던 인사를 회고한다. 또 해양공학교수, 변호사 등 각 분야에서 신뢰받는 국내외 전문가 16명이 한국사회 구조적 모순을 되짚어 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문의 062-224-5858

메이홀에서는 16일 오후 5시 영화 ‘나쁜 나라’(감독 김진열)를 선보인다. 2014년 4월부터 약 1년간 희생자 가족들이 국회, 광화문, 청와대 앞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진행한 노숙 투쟁을 필름에 기록했다. 무료. 문의 010-6791-805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영화 ‘업사이드 다운’ 포스터

19~24일 영광 예술의 전당서 전남연극제

예선 거친 6개 작품 참여

전남 연극인들의 큰 잔치 제 34회 전남연극제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영광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다.

‘연극을 소리쳐 불러보다’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연극제는 전남 지역 22개 시군 예선을 거쳐 선발된 6개 지역 작품들이 참가한다

첫날 오후 4시 나주 극단 예인방의 ‘향수’를 시작으로 ▲품(순천)=아빠들의 소꿉놀이(20일 오후 7시) ▲파도소리(여수)=오거리 사친편(21

일 오후 7시) ▲선창(목포)=마술가계(22일 오후 7시) ▲백운무대(광양)=늪은 자전거(23일 오후 7시) ▲미암(해남)=그들의 귀향(24일 오후 4시) 공연이 이어진다. 대상 수상작은 오는 6월 청주에서 열리는 제1회 대한민국연극제(옛 전국연극제)에 전남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전남연극제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호, 전문예술극단 ‘예인방’ 대표)는 향후 군민 회원을 중심으로 한 연극단체와 종교고 학교기관이 참여하는 꿈나무 연극반을 설립도 추진 중이다.

문의 061-350-5400. /김미경기자 mekim@

커피숍 상가 4층 건물 매매
전대정문 모아 A.P.T 후문 코너자리

1층 (커피숍 입점)

2층~3층 (고급 룸 8개)
4층 (주택)을 주택
(방 3개, 화장실 2개, 내부 깔끔한 화이트, 다용도실)

임대완료 정남향 코너자리

□ 월수익 → 500만
□ 매가 → 6억 8천만 (용 1억5천만)

(※ 주인직매) 010-6670-9800 010-7384-7800

근린상가 오피스텔 매매
소액투자 가능, 3천만~2억

□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6층 (45평) 율수리 천원 전방 전용 - 보증금 1,000만, 월세 60만 (용 5천)	□ 서구 쌍촌동 대우파크빌 (별과 원룸) - 2층 (11평) 운전역 1번출구에서 3분거리 -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 매가 1억 1천만	□ 매가 3천 5백만 (전세값으로 내담바람)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역 - 보증금 500만, 월세 45만 (용 1천 6백만)	□ 광산구 월계동 참단지구 1층상가 - (40평) 1층 상가, 미용실, 식당, 프랜차이즈 추천 - 보증금 800만, 월 80만 (용 4천)
□ 매가 8천 500만	□ 매가 1억 5천만
□ 상무지구 수림 오피스텔 -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역 - 보증금 500만, 월 42만 (용 2천4백만)	□ 전남 광양 광영동 상아 아파트 - (55평) 2층-전방 전용, 주변 골목상, 아파트 밀집지역 - 보증금 200만, 월 25만 (전세 2천5백만 가능)
□ 매가 7천 500만	□ 매가 3천 5백만

010-6834-4800

법률경매
(주)대신경매

(특수물건 추천)	수익성 상가 (근린주택, 주택)
1. 전남 정성 상사 (토 3492평, 건 5733평) (의료시설) ◆ 2층~3층 (의료시설) 전 요양병원 운영 ◆ 정성 상무대 입구, 대로변 감정가 48억 8천 6백 - 최저가 48억 8천 6백	① 전남 나주 봉황원 (토 89평, 건 49평) (전원주택) ◆ 단층 주택, 민원전원일 가능, 전원주택특성 감정가 1억 5천 5백 - 최저가 1억 9천 9백만
2. 서구 양동 (토 577평, 건 2424평) (숙박시설) ◆ 1층 (주차장, 카운터) 2층~5층 (숙박시설, 40개) ◆ 광주은행 동쪽 인근, 약 10M 도로 접 감정가 10억 8천 - 최저가 6억 8백	② 전남 나주 노안면 (토 497평, 건 269평) (전원주택) ◆ 2층 주택, 석정마을 인근, 전원주택 추천 감정가 3억 4천 - 최저가 2억 5천
3. 서구 화정동 (토 800평, 건 2567평) (동 나이트) ◆ 광천리미널 뒤편 위치 ◆ 원 나이트 운영중 ◆ (나이트 직영, 터미널 부근 투자 가치 추천) 감정가 130억 - 최저가 62억	③ 동구 지선동 (토 42평, 건 28평) (주택) ◆ 광주지방법원 북쪽 인근, 차량 진입 가능 감정가 7천 4백 - 최저가 7천 4백
4. 전남 순천 장천동 (토 124평, 건 142평) (근린시설) ◆ 지하 (점포 사무실) 1층 (점포 사무실) 2층 (점포 사무실) ◆ 순천시청 동쪽 인근, 대로변 전 감정가 5억 - 최저가 2억 2천	④ 동구 신수동 (토 43평, 건 25평) ◆ 산수초등학교 인근, 약 2~3m 골목길 감정가 6천 8백 - 최저가 4천 8백
5. 전남 순천 조례동 (토 2332평, 건 3960평) (근린시설) ◆ 7층 건물 (수영장, 사우나, 골프장, 주력 헬스) 복합 건물 ◆ NC백화점 부근, 대단위 아파트 단지, 순천 IC 중심지 대로변 감정가 140억 - 최저가 64억 5천	⑤ 북구 오지동 (토 38평, 건 48평) ◆ 오지동상당 부근, 약 3m 진입로 이용 접근 가능 감정가 1억 2천 - 최저가 1억 2천
6. 정성 상사 (토 367평, 건 1989평) (근린시설) ◆ 상무대 상무아파트 부근, 소로까지 접, 주차장 완비 감정가 15억 - 최저가 6억 7천	수익성상가 (근린주택) ① 북구 연제동 (토 84평, 건 165평) * 1층~2층 상가, 3층 주택 감정가 5억 2천 - 최저가 5억 2천
	(토지 추천) ① 광주 남구 주월동 (184평) (농지) ◆ 주월동 2차 현대아파트 부근 (차량접근 가능) ◆ 전원 주택적 추천, 식당, 마트 추천 감정가 2억 5천 6백 - 최저가 1억 8천

경매교육
경매 이해는 대강화시!!!

바로실전 교육등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 오후반)
주말반 (오전, 오후반)

경매본교육부터 실천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경매 배우실분,
부동산 자격증있으신분
부동산 관련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분 환영합니다.

010-6832-9700